



깊어지는 '빛의 늪'

올 채무조정 신청 9만1081명
 지난해 신청자의 70% 육박
 변제기간도 100개월 첫 돌파
 성실 상환자 소액대출 신청 ↑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이후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한계 차주(대출자)들의 부실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돈다.

여기에 채무조정 대상자 중에서 그동안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연체율마저 급증해 빚의 골레가 더욱 옥죄어지는 추세도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9만1081명...신속채무조정 급증=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981명이다.

이는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202명)의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자율을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무엇보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 유예 또는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진다.

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1348명으로, 지난 한 해 전체 신청자 수(2만1930명)의 97.35% 수준에 달한다.

이미 반년 새 지난 한 해 수준과 맞먹을 만큼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얘기로,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대출자가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었다. 그만큼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채감경기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금융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 91.0개월, 지난해 94.1개월로 늘어났더니, 올해 6월 말에는 100.5개월로 길어졌다.

◇성실 상환자도 자금 사정 악화...소액대출·연체율도 급증=채무조정 기간 중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자금 사정도 어려워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액대출의 경우 2018년 2만1690명이 신청했으나, 작년 4만4671명으로 급증했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소액대출 신청자는 2만3264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소액대출 연체율은 2018년 6.7%에서 지난해 10.5%까지 뛰어 오른 뒤 올해 6월 말에는 10.9%까지 올랐다.

빚의 골레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실 상환자들마저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에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러 계좌를 통해 복수 대출을 받는 형태가 많았다.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4만7403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2~3개 계좌 이용 수가 1만4275건(18.7%), 10개 이상 계좌 이용 수가 1만4134건(16.8%)으로 나타났다. 1개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는 4891건(6.4%)에 불과했다.

대출받은 기관은 신용카드로(39.2%),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 순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3년 나주 햇배 약 140t 미국 첫 수출길

전년비 47% 증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4일 나주배원에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올해 나주 햇배 미국 첫 수출 선적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적식에는 김춘진 aT 사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진종문 NH농협무역 대표 등이 함께했다.

수출되는 물량은 컨테이너 10개 분량, 약 140 t이다. aT는 지난 4월 냉해 피해와 7월 폭우 속에서도 수출 규격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 대상 품질관리 기술 지도와 품질개선사업 지원에 앞장서 왔다.

김춘진 사장은 "한국산 배의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진행 중"이라며 "신선 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



성을 위해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등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수출은 2021년 대비 3.6% 증가한 743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대미 수출은 16% 증가한 3596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8%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배 전체 수출은 7월 말 기준 지난해 같

은 기간 대비 47% 증가한 1836만 달러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공사는 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출되는 고품질의 한국산 배의 판매 촉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 판촉전과 홍보 행사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전KPS '전 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절약 방법·홍보용품 배포

한전KPS는 지난 14일 광주송정역에서 '전 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광주송정역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 및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등의 생활 속 실천 에너지 절약 방법과 홍보용품을 배포하는 등 에너지절약 동참을 적극 호소했다.

한편 한전KPS는 지난 5월부터 분사 및 전 사업소 직원들 대상으로 '중요한 건 PC·조명·대기전력을 끄는 마음', '에너지 다이어트 10' (여름철 사내 전력 사용량 10% 감축)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잔반줄이기 캠페인, 대화용품 사용 독려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김홍연 사장은 "전국민이 에너지 절약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이라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동안 완벽한 발송 전 설비 정비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물고기 생명길' 어도사진 공모전 연다

10월 5일까지 온라인 접수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제6회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 응모작을 오는 10월 5일까지 접수 받는다 고 밝혔다.

어도사진 공모전은 아름다운 어도사진을 통해 어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어도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사진이면 된다.

응모 부문은 일반카메라와 휴대폰으로 나누며,

부문별로 1인당 3점까지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응모작은 주제부합성, 작품성, 활용도, 형식준수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총 24점에 대해 9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어도는 강과 하천에 설치된 보나 댐 같은 구조물에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생태통로로 전국에 약 5000여 개가 있으며, 해수부와 농어촌공사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자영 어촌수산처장은 "매년 응모작이 늘어나

면서 내수면 자원 조성 확대와 친환경적 생태통로로서의 어도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용이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법집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